

‘시의 위로’ ‘감성 소통’...ACC 인문강좌

29일~11월28일 마지막 주 수요일
정재찬·유창중·김동철·김상욱 강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ACC)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운영하고 있는 인문강좌 하반기 일정을 공개했다.

오는 29일 시작하는 인문강좌의 첫 시간은 ‘그대를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한양대 정재찬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TV 프로그램 ‘어쩌다 어른’, ‘김제동의 토틀투유’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친숙한 정 교수는 사람들의 기억과 가슴속에서 떨어진 ‘불후의 명사’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시를 통한 공감과 위로를 전달한다.

9월 인문강좌(9월19일)는 ‘기와 검사’라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유창중 변호사가 ‘기와 검사가 본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를 주제로 강연한다.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이면서 유급과당박물관 공동관장인 유 변호사가 한, 중, 일 세 나라의 문화적 특징과 상호 문화교류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10월 인문강좌(10월31일)는 김동철 심리학자의 ‘감



정재찬 교수



유창중 변호사



김동철 심리학자



김상욱 교수

성 소통 그리고 심리 운영’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강연에서는 현대인들의 심리적 안정에 따른 ‘심리면역성 길러내기’와 개인과 집단에서 발생하는 ‘소통문제’, ‘공감문제’, 개인의 ‘심리 혹은 정신적 문제’를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예방법을 알려준다.

하반기 마지막 강좌(11월28일)는 김상욱 교수의 ‘뉴턴의 아틀리에’다. 철학하는 과학자로 여러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김상욱 교수는 물리학자의 눈으로 우주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보고 우주가 숨겨놓은 아름다움을 이야기 한다.

자세한 내용과 참여 신청은 ACC 공식 홈페이지(www.ac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899-556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음악극 ‘부용산’ 새단장 무대 오른다 23일 보성문화회관

작년 연말 별교 채동선음악당에서 공연 돼, 지역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던 창작음악극 ‘부용산’이 올해 새로운 작품으로 무대에 펼쳐진다.

한국예총 보성지회는 오는 23일 오후 4시 보성문화회관에서 ‘부용산’을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체육부, 전남문화관광재단, 보성군후원원으로 한국예총보성지회와 ‘시가 흐르는 행복학교’가 공동으로 제작·기획했다. 연출은 광주 출신 현대철 씨가, 극본은 보성이 외가인 시인 김경주가 썼다.

창작음악극 ‘부용산’은 한국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별교에서 살아가는 민중들의 삶을 그린 작

품이다. 원래 ‘부용산’은 별교 출신 국어교사이자 시인인 박기동 선생이 요절한 누이를 위해 지은 제망매가다. 목포여중 근무 당시 동료였던 음악교사 안성현의 시에 곡을 붙여 탄생했다.

‘부용산’은 운동권의 노래로 알려지면서 군사정권 때 금지곡으로 지정됐다. 이동원, 안치환, 한영애 등이 부르며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극중 작시는 보성 출신 이창수 시인이 맡았고, 이지영 씨는 ‘부용산’ 편곡 외에 모든 곡을 쓰고 편곡했다. 미술감독은 큐레이터 강유선 씨가 맡았다. 관람료는 1만원 보성군민은 무료. 문의 010-2297-6383, 010-3896-1555. /박성천 기자 skypark@



창작음악극 ‘부용산’

비엔날레 북한미술 소개 문범강 교수 강연

23일 광주 대인동 ‘김넛과’

오는 9월 광주비엔날레에서 만나는 북한미술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시민과 함께하는 김넛과 예술특강 ‘문범강 교수가 들려주는 북한미술’이 오는 23일 광주 대인동 북학문화공간 ‘김넛과’에서 열린다.

‘북한미술·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North Korean Art-Paradoxical Realism)’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광주비엔날레에 북한미술을 소개하는 문범강 조지타운대 교수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다.

일반 시민들에게 북한 미술 전시기획 배경과 조선화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문범강 교수가 집필한 저서 ‘평양미술, 조선화 너는 누구냐’ 북 사인회도 결별일 예정이다.

문교수는 2010년 처음 북한미술을 접했을 당시의 감격과 소회를 비롯해 국내외 창작활동과는 다른 양상을



문범강 교수

보이는 북한미술의 창작소와 미술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작가들의 생활상과 창작기관의 특성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서양화가로 출발해 조선회를 연구해온 배경과 급변하는 현 정세의 흐름에 따른 한반도 예술의 전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깊은 시각으로 다각화되는 예술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한편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작품 해포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시 설치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문교수 또한 베이징 소재 만수대장작사 작품을 비롯한 북한의 집체창작품 22점을 선보이는 색션의 큐레이터로서 분주하게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문의 062-229-335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영화제 운영진

20일까지 인터넷 접수

광주여성영화제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9회 광주여성영화제’를 함께 이끌어 갈 스태프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홍보와 운영 등이다.

여성영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오는 22일 열리는 인터뷰 면접 등을 거쳐 최종합격된 이들은 24일 워크숍 후 27일부터 11월26일까지 3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광주여성영화제는 여성의 삶을 주제로 한 영화제로 2010년 성 평등 확산을 위한 1회 여성 영화제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광주여성영화제 홈페이지(cafe.daum.net/wffig)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여성영화제 사무국(062-515-65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가 6명 눈에 비친 북한의 현실

성석제·공선옥 등 소설집 ‘안녕, 평양’ 출간

2018년 한반도는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결코 회개할 수 없을 것 같은 남북간에 변화의 기류가 싹트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일의 평양은 오늘과 다를까? 성석제, 공선옥, 김태용, 정용준, 한은형, 이승민 등 내로라하는 소설가부터 갓 데뷔한 신인 작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6인의 작가가 북한을 이야기한다. 3년 전 기획해 이번에 출간된 소설집 ‘안녕, 평양’ (영터리북스·사진)이 바로 그것.

이야기꾼 성석제의 ‘매달리다’는 뱀사람으로 태어나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갑작으로 내몰린 한 사내의 인생을 담고 있다. 작가는 지극히 평범한 주인공을 내세워 인물의 희로애락을 담담히 풀어낸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우리 역사는 꼬이고 비틀어져 그를 온전하게 두지 않는다.

당대의 현실을 리얼하게 그리는 공선옥 작가는 ‘세상에 그런 곳은’에서 계약 노동자 완과 북한 이주민 준의 시선을 교차하며 남루한 일상을 보여준다. 인물들은 해고 통보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며



이성에 대한 호감조차 물리적 생활고로 삭이며 지낸다. 아르바이트로 버어연합의 시위에 용역으로가담하는 새터민의구토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악전고투한다.

특유의 독특한 서사와 지적인 탐구가 돋보이는 김태용의 ‘육미의 여름’은 2023년 평양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북한 최고 여성 과학자와 연구원, 서울 여성기자의 흥미진진한 만남이 이어진다. 만나기 까다로운 북한의 여성 과학자 리현심 박사를 인터뷰하기 위해 대동강변 과학자거리에서 북한의 연구원 옥미를 만난 남한 기자의 이야기다.

이렇듯 6명의 작가는 서로 다른 소설로 미처 몰랐던 북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가까운 그곳에도 친구와 가족, 시와 노래, 생생하게 숨 쉬는 일상이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연극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파독간호사 다룬 연극, 영상으로 만난다

16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 ‘SAC on Screen(썩은 스크린)’은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연극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를 상연한다.

영상으로 즐길 수 있는 예술의전당 ‘SAC ON SCREEN’은 매달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다.

연극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난 2017년 예술의전당이 제작하고 김재엽이 연출한 창작 작품이다. 이번 작품은 ‘세계시민 이주민 그리고 난

민’의 두 번째 시리즈로, ‘독일로 간 간호여성들은 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궁금함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파독간호사를 둘러싼 선입견에서 한 발 물러나 김재엽이 직접 듣고 경험한 그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정체성을 재 탐구하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김재엽은 베를린에서 지내며 수많은 재독 간호여성을 만나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듣고 기록하며, 거대 담론에서 소외됐던 ‘절반의 역사’ 속 그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입장료 무료(선착순 100명). 전화예약 062-670-793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6834-7400